

【논 문】

하-송의 5년전쟁(1039-44)과 11세기 동아시아 세력균형

윤 영 인*

┃ 차 례 ┃

1. 머리말
2. 거란·대하·송의 맹약체제와 ‘정치·군사연계망’
3. 하-송의 5년 전쟁(1039-44)을 통해 본 동아시아 세력균형
4. 결론

국문초록

‘조공체제’ 이론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정치적·체제적(그리고 의례적) 국가교류의 기록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용이할 수 있지만 국제관계는 중앙정권의 정치적 교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돌과 전쟁, 타협과 세력 균형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한문사료의 형식과 용어에 집착하는 조공체제 이론의 틀은 대하-거란-송 사이의 유동적이고 복잡한 세력균형을 통해 이루어진 다원적 국제관계의 현실을 왜곡한다. 여기서 “세계체제 이론”(World-Systems Theory)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거시적 틀을 제공한다.

1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거란, 하, 송, 고려와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정치·군사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대하는 독자적이자 실리주의의 외교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갔다. 11세기 중반 새로 즉위한 대하의 군주 외명 원호는 송에게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송이 거부하면서 5년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대하는 계속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는 전쟁 이전의 상황과 다를 바 없었고 송이 고집한 명목적 ‘조공체제’의 형식을 수용하는 대신 변경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에 만족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대

*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하와 송의 5년 전쟁의 진행과정과 거란·대하·송 각국의 전략과 대응은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연계망의 단면과 세력균형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 11세기 동아시아, 세계체제이론, 조공체제, 하송전쟁, 대하(탕구트), 거란,
전연의 맹약

1. 머리말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조공책봉체제(The Tribute System) 또는 ‘중국적세계질서’(The Chinese World Order) 이론의 가장 큰 모순은 정치·군사적 관계를 어느 특정 문화적 기준(즉 한족문화)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세 가지 유형과 범위로 나누었는데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을 ‘내륙 아시아 지역’(Inner Asian Zone)으로, 중국왕조와 산발적인 교류에 그치면서 진정한 조공체제는 이루지 못하였던 동남아시아, (특정 시기)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외부 지역’(Outer Zone)으로 설정한 반면, 문화·제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한화’(漢化)가 이루어졌다는 한반도와 베트남은 ‘한족문화지역’(Sinic Zone)으로 분류한다.¹⁾ 그리고 ‘한족문화지역’에 속하는 한국과 베트남의 대 중원과 관계에서는 정치·군사적 요소가 문화·이념적 요소에 비해 부차적이자 일시적이었다고 보았고 특히 한반도의 역대 왕조는 조공체제의 이념을 전면 수용하였기에 중원에 위치한 한족왕조, 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같은 외래왕조와의 관계마저도 ‘조공체제’라는 문화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페어뱅크의 문화론은 ‘동일’ 문화권 국가들은 서로 비슷한 국제질서에 결합하여 다른 문화권의 국가들과 경쟁한다는 주장으로 헌팅턴(Samuel

1) John K. Fairbank, "A Preliminary Framework," 13.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론’(Clash of Civilizations)과 유사한 시각을 보여준다. 페어뱅크나 헌팅턴은 모두 소위 ‘문명’ 사이의 충돌을 강조하면서도 ‘동일한 문화’안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과소평가하지만 실제 세계사에 있어서 문화적 유사성이 정치·군사적 정책에 우선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치열하였다고 보는 유목문명과 농경문명의 충돌보다 오히려 ‘동일 문명’의 유목부족 사이에 일어난 내부 분쟁이 더 빈번하였고 유목민과 정착민 사이에 존재한 문화적 차이가 양자 간의 충돌만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밀접한 관계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²⁾ 그리하여 페어뱅크가 제시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의 ‘문화론’에 대한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몇 학자들은 전근대시기, 특히 10-13세기 동아시아를 조공체제의 문화론에 입각한 일원적인 질서가 아닌 정치·군사적 세력균형을 통해 형성 유지된 다원적 국제질서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노력해 왔다.³⁾

‘조공체제’의 이론과 용어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정기적·체계적(그리고 의례적) 국가교류의 기록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비교적 용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결코 중앙정권의 정치적 교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돌과 전쟁, 타협과 세력 균형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만일 고려와 대하를 거란과 송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를 통해서만 접근한다면 당시 군사적 세력 균형의 중요한 축이었던 이 두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몇 차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적대적 관계가 오래 지속된 반면 금과 고려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없이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유지된 이유는 기존 조공체제의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거란과 금의 대외 인식의 차이점과 지정학적 세력 균형의 변화(특히 북방초원에 대한 정복왕조 거란과 금의 영향력의 차이)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은 금과 고려 사이의 비교적 평화로웠던 관

2) Naomi Standen,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55-79.

3) 그 대표적인 예는 Morris Rossabi가 편집한 *China Among Equals*이다.

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조공체제의 용어와 형식이 적용되었던 지역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역사의 범위 설정은 본질적으로 인식상의 문제이기때문에 그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⁴⁾ 나아가 사료가 소략한 전근대시기 어느 특정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의 한계, 나아가 그러한 국가가 속하였던 국제질서의 경계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조공체제’의 이론적 틀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세계체제 이론”(World-Systems Theory)은 유용한 거시적 틀을 제공한다. 세계체제는 생필품 연계망(Bulk Good Network), 사치품 연계망(Prestige Good Network), 정치·군사 연계망(Political-Military Network), 정보 연계망(Information Network)의 네 연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사회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연계망(network)을 통해 일어나는 무역과 전쟁, 정보 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특히 지역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⁵⁾

세계체제의 이론적 틀을 활용한 11세기 내륙아시아 여러 연계망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과 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정치·군사 연계망’은 종종 조공체제 이론이 강조하는 일대일 관계를 넘어 여러 국가 사이의 보다 포괄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비록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체제 이론의 적용은 쉽지 않지만 정치·군사연계망의 틀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시도는 ‘조공체제’이론의 문제점을 통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단서를 제시할 것이다.⁶⁾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정치·군사연계망의 형성과 유지의 시각

4) Martin W. Lewis and Karen E. Wigen, *The Myth of Continents—A Critique of Metageography*.

5) Christopher Chase-Dunn and Thomas D. Hall, *Rise and Demise : Comparing World Systems*, 28, 52.

6) 윤영인, 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이익주 외 지음,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145-152쪽.

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력의 균형이었다. 대다수 연구가 아직 조공체제의 틀 안에서 한족왕조 송/남송과 그리고 ‘정복왕조’ 거란/금 사이의 남북대립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제질서와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한 것이 바로 ‘주변’에서 조공책봉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고려와 탕구트(党項)족의 백고대하국(白高大夏國) [일반적으로 대하 혹은 서하로 기록]였다. 그러므로 소위 ‘변방’으로 인식되는 고려와 대하의 시각이 포함된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국제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중심’에만 집착하는 한족 중심적·문화론적 조공제도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관계의 실체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송의 대외관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 중 하나인 『續資治通鑑長編』의 기록을 토대로 11세기 중반 발생한 대하와 송의 5년 전쟁의 진행과정과 거란·대하·송 각국의 전략과 대응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통해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연계망의 단면과 세력균형의 모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거란·대하·송의 맹약체제와 ‘정치·군사연계망’

10-11세기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는 북방의 정복왕조 거란과 중원의 한족왕조 송이었지만 이 거대한 제국들도 심각한 외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특히 송은 북으로 거란과 대하라는 두 강력한 제국과 대치하고 있었기에 북방 변경의 안정은 조정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다. 거란만큼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송의 서북에 위치한 대하는 단순한 ‘조공국’이 아니라 외명원호(號名元昊)가 칭제건원(稱帝建元)한 1038년 이후 근 2세기 동안 독립을 유지하면서 송과 거란 [그리고 후대의 금]과 더불어 동아시아 세력균형을 형성하고 유지하였던 중요한 축이었다. 그러나 중원의 사가들이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후대의 몽골

제국은 역사편찬 과정에서 대하를 제외하였기에 『遼史』, 『宋史』, 『金史』의 외국열전(列傳)에 단편적 모습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대하의 정치사나 대외관계사연구에서는 ‘한화’와 ‘조공제도’를 강조하면서 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한족중심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실제 『宋史』는 대하가 비록 송의 책봉을 받았지만 신복한 적이 없다고 기록하여 전통적 조공체제가 형식적인 껍질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한다.⁷⁾

10세기 말 송은 서역으로 통하는 무역로와 말, 소, 소금 등의 자원이 풍부한 오르도스(현재의 甘肅省 일대)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대하에 수차례 공격을 시도하였지만 인구와 경제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이 우수한 탕구트 기병에게 거듭 패배한다.⁸⁾ 송은 세력균형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에서 북에 위치한 거란의 위협으로 인해 대하와의 전쟁에 모든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었고, 조공체제의 형식을 고집하였기에 대외관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에 비해 대하는 986년에 거란에 ‘조공’하고 3년 후에는 거란 황실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는 ‘책봉’을 수용하면서 거란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⁹⁾

대하와 거란의 관계는 한문사료에 ‘조공체제’의 틀과 용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기 국제관계의 현실은 동일문명권의 동맹도 아니고 조공체제의 이상도 아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세력균형이었다. 거란과의 원만한 관계를 토대로 대하는 송과의 충돌에서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지만 송은 항상 거란과 대하가 연합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처해야만 하였다.¹⁰⁾ 그리하여 1004년 대하는 군주 이계천(李繼遷)이 티베트와의 전쟁에서 전사

7) “概其歷世二百五十八年，雖嘗受封册于宋，宋亦稱有歲幣之賜、誓詔之答，要皆出於一時之言，其心未嘗有臣順之實也 (『宋史』, 486.14030).

8) Ruth Dunnell, “The Hsi Hsia,” i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vol. 6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68-172. 오르도스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 from History to Myth*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91-139 참조.

9) 『遼史』, 11.119, 12.134, 13.140 ; 吳天墀, 『西夏史稿』(成都 : 四川人民出版社, 1980), 92-9 ; Ruth Dunnell,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13

10) Jing-shen Tao, *Two Sons of Heaven*, 57-8, 63.

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송은 대하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거란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송은 대하를 공격할 수 없었다.¹¹⁾

중원을 통일한 송은 건국초기에 아직 세력 균형이라는 국제질서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천하의 중심을 자처한 자신감으로 거란과 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제공격에 나섰다. 특히 거란과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으로 960년 송 건국 이후 전연의 맹약이 체결된 1005년까지 근 반세기 동안 국경에 평화가 유지된 시기는 974년에서 979년까지 단 5년에 불과하였다. 10세기 후반 거란, 대하, 송 사이에 발생한 전쟁과 충돌은 결국 1005년 거란과의 전연의 맹약(澶淵之盟), 그 다음 해 송과 대하와의 맹약이라는 타협을 이루었다.¹²⁾ 즉 11세기 초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송의 물자제공을 매개로 한 세력균형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시기에 형성된 맹약체제의 성격은 거란과 송 사이에 맺어진 전연의 맹약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맹약은 1004년 12월 7일(양력 1005년 1월 17일) 송 진종이 보낸 「宋眞宗誓書」와 5일 후 거란이 보낸 회답 「聖宗回宋誓書」로 ‘체결’되었고, 거란의 회서(回書)는 송의 서서(誓書)를 인용한 후 그 내용을 준수한다고 맹서한다.

때는 [송 진종] 景德 원년으로 갑진년(1004) 경진달 12월 병술 7일에 대송 황제가 삼가 거란 황제폐하에게 맹약의 서신을 보냅니다. 서로 정성된 믿음으로 받들어 기쁜 맹약을 굳게 지키며, [송] 풍토의 자원으로 [거란의] 군사 비용을 돕기 위해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보낼 것입니다. 또 북조에 [세폐를] 전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지는 않으며 다만 삼사에 명하여 사람을 보내 응주까지 [세폐를] 운반하여 전달하도록 합니다. 변경지역에 접한 州와 軍은 각 [지금의] 변경을 지키며 양쪽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혹 도적이 [다른 쪽으로] 도주한다면 쌍방은 체류를 허락하거나 숨겨주지 않습니다. [변경지역의] 농토에서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11) Dunnell, “The Hsi Hsia,” 172

12) 1004-5년의 거란과 송의 전쟁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는 David C. Wright,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 39-99를 참조.

데 있어서 남과 북의 [왕조는] 소란을 피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모든 성곽과 해자는 이전의 [상태와 같이] 유지할 수 있으며, 해자의 준설과 수리는 모두 [이전의] 일반적 예를 따릅니다. 그러나 성곽과 해자를 새로 축조하거나 하천의 길을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맹약의 서신 [내용] 외에 각국은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반드시 협동하여 [이 맹약을] 오래 존속합니다...¹³⁾

여기서 송은 매년 비단 20만匹과 은(銀) 10만兩의 세폐를 보내며, 양국은 서로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고 지키며, 국경을 넘어 온 상대방의 도망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변경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을 서로 방해하지 않고, 성곽과 해자 등의 군사시설을 신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즉 맹약을 통해 확정된 국경은 문화·언어적·생태적 경계가 아닌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 정치·군사적 경계선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전연의 맹약을 송이 공식적으로 거란을 ‘동등’한 대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지만 반대로 군사적 우위에 있던 거란이 물자제공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 송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은 거란과 대하에 모두 물자를 제공하면서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유지하였지만 맹약의 형식과 의례에서는 서로 다르게 접근하였다. 송을 멸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거란을 ‘동등한’ 존재로 수용한 반면, 그보다 ‘작은’ 대하에 대해서는 기존 중원의 한족왕조처럼 조공체제의 형식을 강요하여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명목적인 ‘동등관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대하는 서표(誓表)를 올려 송의 ‘우위’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은 10,000냥, 비단 10,000필, 전(錢) 30,000관(貫), 차 20,000근의 세사(歲賜), 그리고 변경에서 소금을 무역할 수

13) “維景德元年，歲次甲辰十二月庚辰朔，七日丙戌，大宋皇帝，謹致誓書於契丹皇帝闕下。共遵誠信，虔守歡盟。以風土之宜，助軍旅之費，每歲以絹二十萬匹，銀一十萬兩。更不差使臣專往北朝，只令三司差人，搬送至雄州交割。沿邊州軍，各守疆界，兩地人戶，不得交侵，或有盜賊遺逃，彼此無令停匿。至於豐畝稼穡，南北勿縱播擾，所有兩地城池，並可依舊存守，洶濠完葺，一切如常。即不得創築城隍，開掘河道。誓書之外，各無所求，必務協同，庶存悠久…”(『欽定重訂契丹國志』(『四庫全書』本)，卷20，「宋眞宗誓書」)。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비록 대하에게 제공된 세사의 액수는 거란이 제공받은 비단 200,000 필과 은 100,000 량의 세폐에¹⁴⁾ 미치지 못하였지만 송이 양국에 모두 물자를 제공하면서 변경의 안정과 세력균형을 도모하였던 사실에서 세폐와 세사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하-송의 5년 전쟁(1039-44)을 통해 본 동아시아 세력균형

물자를 제공하고 실리와 명분을 거래하여 평화를 유지하던 송과 대하의 관계는 1032년 새로 즉위한 이[조]원호(李[趙]元昊¹⁵⁾)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038년 대하의 군주 이원호는 당 조정이 하사한 이(李)씨 성을 탕구트식 외명(鬼名)으로 바꾸고 대하황제(大夏皇帝)를 자칭하면서 거란이 누리고 있던 위상을 대하에게도 인정할 것을 송에게 요구하였다.¹⁶⁾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대하가 거란에 대해서는 동등한 관계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遼史』에는 탕구트 군주의 칭제 선언도 보이지 않는다.

거란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였던 송은 또 하나의 ‘황제’를 수용하고자 하지 않았고 기존의 ‘조공체제’ 형식을 계속 고수하였다. 대하에 물자를 제공하면서도 ‘조공체제’의 형식을 통해 명분이나마 우월함을 유지한 송에게 대하의 건원칭제 수용은 그 명분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송은 다음 해인 1039년 중반에 강경책으로 대응하여 이전에 대하 군주에 부여하였던 작위와 송 황실의 조(趙)씨 성을 삭탈하고 이내 물자제공 즉 세사도 중단하였으며 변경의 섬서(陝西)와 하동(河東)의 호시(互市)와 보안군(保安軍)의 각장(榷場)을 폐지한다.¹⁷⁾ 이러한 조치는 대하로 하여금 기존 ‘조공체

14) 『宋史』, 485.13989-90.

15) ‘李’와 ‘趙’는 각각 당과 송의 황실로부터 대하의 군주가 하사받은 성으로 이 시기 사료에 모두 보인다.

16) 『宋史』, 10.205 : 金渭顯, 「西夏與宋契丹之關係(986-1048)」, 『明知史論』 7 (1995), 85-92.

17) 『宋史』, 186.4563.

제'의 형식을 통한 물자획득이라는 실리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대하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식의 국제관계의 형식을 위해 기존의 실리를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을 대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송은 또 대하의 배후에 있던 청당(靑唐) 티베트계 부족들을 회유하여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정치·군사연계망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⁸⁾

송의 적대적인 정책과 경제적 제재에 반발한 대하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은 1039년에 시작하여 1044년까지 5년간 계속되었다. 1039년 말 대하는 각장이 설치되었던 보안군(保安軍)[현 陝西성 志丹 吳旗 일대] 등 송의 변경 지역을 공격하였으나 큰 성과 없이 철수하였다.¹⁹⁾ 송은 비록 대하의 초기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었지만 월등한 인구와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변경의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대하와 접한 변경의 오르도스 사막과 초원 지역은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농경보다는 유목생활에 적합한 곳으로 거주민이 많지 않았고 행정과 군사 중심지역들이 서로 먼 거리에 산재하여 있었기에 많은 군인과 대량의 군수물자 조달이 필요하였다. 또 기병으로 구성된 대하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기병중심의 군대조직이 필요하였지만 이는 단기간에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군마의 확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다.²⁰⁾ 나아가 전쟁 초기인 1039년 북중국을 강타한 기근으로 인해 이미 190만에 이르는 백성을 구출해야 하였던 송나라 조정에게 대하와의 전쟁 비용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었다.²¹⁾

194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44년까지 지속된 전쟁은 대체로 대하의 공격을 송이 방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송은 대규모 전투에서 계속 크게 패하기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변경을 지킬 수 있었다. 1040년 초 대하는 연안부(延安府)[현 陝서성 延安市]를 공략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송은 그 해 가을 부임한 범중엄(范仲淹)의 지휘아래 계속되는 대하의 공격을 막아

18) 『續資治通鑑長編』, 123.2902, 2904-6, 2908.

19) 『宋史』, 467.13637 : 姬乃軍, 「宋与西夏在保安軍互市榷場位置考」.

20) 『宋史』, 198.4946-50 : Paul J. Smith, *Taxing Heaven's Storehouse*, 264-5.

21) 『宋史』, 312.10222.

낼 수 있었지만,²²⁾ 9월에 위주(渭州)〔현 甘肅성 平涼〕 부근의 삼천(三川)에서 5,000 여명의 군사를 잃는 참패를 당하였다.²³⁾ 다음 해 1041년 정월 대하 군주 외명원호는 10만 대군을 인솔하여 송의 변경으로 접근하였고 다음 달 2월 송나라 부총관(副總管) 임복(任福)이 인솔하는 5만군은 호수천(好水川)에서 대하의 복병에 걸려 거의 전멸당하는 참패를 당하였는데 이는 송의 건국 이래 가장 큰 패배로 조정은 이 충격적 소식을 열흘 동안이나 황제인 인종에게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⁴⁾ 이후 송은 더 이상 대하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방어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만승군(萬勝軍)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여 12,000명을 서북변경 인주(麟州)와 부주(府州)에 배치하였다.²⁵⁾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송 조정이 가장 주의하면서 민감하게 대처한 것은 대하와 거란의 군사 동맹과 협공의 가능성이었다. 송은 종종 거란에 사신을 보내 대하에 대한 공격계획을 미리 통보하면서 거란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란은 방관자로 남아 있지 않았다. 비록 송이 우려한 것처럼 대하와 동맹을 맺고 송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송과 대하가 서로 충돌하며 군사력을 소모하는 상황에서 거란은 자신의 위상과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전연의 맹약 이후 30여 년 동안 송과 거란의 관계는 평화로웠지만 송이 호수천에서 참패한 소식을 접한 거란의 흥종(1031-55)은 변경에 군대를 배치하며 송을 위협하였다.²⁶⁾ 즉 1041년 말에서 1042년 말까지 1여 년 동안 대하와의 전쟁에서 대규모 패배를 겪은 송은 거란이 개입하여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진행해야만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건국 이후 거란의 위협에 대비하여 하북지역 방어에 힘써온 송은 1041년 겨울에 다시 하북로의 성벽과 해자를

22) 『續資治通鑑長編』, 128.3035-6.

23) 『續資治通鑑長編』, 128.3042; 『宋史』, 10.209.

24) 『宋史』, 10.211; 丁傳靖, 『宋人軼事彙編』, 1, 26.

25) 『續資治通鑑長編』, 132.3151, 134.3195-6.

26) 『續資治通鑑長編』, 134.3208.

정비하였지만,²⁷⁾ 무엇보다도 거란의 개입을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1042년 봄 마침내 거란은 그들의 요구를 송 조정에 전달하였는데 사신으로 온 소특묵(蕭特默)은 송이 대하를 공격하는 이유, 전연의 맹약 조항을 위배하면서 하북지역의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사실 등에 대한 해명을 추궁하였다. 하지만 송을 가장 당황하게 한 요구는 와교관(瓦橋關) 이남 10개 현(縣) [즉 관남(關南)지역]의 반환이었다. 원래 후당이 거란에 할양한 연운(遼雲) 16주에 속하였으나 후주(後周)가 다시 거란으로부터 탈환하였고 송이 통치하게 된 영주(瀛州)와 막주(莫州)를 포함하는 이 지역은 송의 북방 방어 전략의 핵심이기도 하였다.²⁸⁾ 송이 결코 관남지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만일 이 지역이 거란에게 넘어간다면 하북지역이 항상 거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 군사적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송은 거란이 계속 영토를 요구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듯 1042년 5월에는 하북로(河北路)의 대명부(大名府) 현 하북성(邯鄲)시 동남에 위치한 대명縣(大名縣)을 북경(北京)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군사 훈련을 진행하였다.²⁹⁾ 동시에 송은 관남지역의 반환을 제외한 거란의 다른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세폐의 증액은 물론 송나라 공주와 거란 황자의 혼인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1042년 여름 송의 사신 부필(富弼)은 관남지역의 반환을 단연 거부하는 대신 세폐의 증액, 그리고 왕실 간의 혼인을 포기하는 대신 추가로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거란조정에 제시하였다.³⁰⁾

송과 거란의 협상 결과에서 거란은 관남지역을 되찾지는 못하였지만 세폐의 증액이라는 실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거란은 하와 송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5년 전연의 맹약에 명시된 액수에 추가로

27) 『續資治通鑑長編』, 134.3187, 135.3226.

28) 『遼史』, 4.44-45.

29) 『續資治通鑑長編』, 136.3260-5, 3267-8 ; 『宋史』, 11.214, 85.2105.

30) 『續資治通鑑長編』, 139.3342 ; Tao Jing-shen, "Yü Ching and Sung Policies toward Liao and Hsia," 116.

100,000량의 은과 100,000필의 비단을 더하여 매년 200,000량의 은과 300,000필의 비단을 제공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하와의 전쟁으로 약화된 송의 입지가 거란에 대한 세폐의 증액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다.

여기서 송 조정을 괴롭힌 것은 세폐의 증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었다. 실제 송이 부담한 세폐는 송나라 일 년 예산의 0.5 퍼센트에도 미치지 않았고,³¹⁾ 거란에 보낸 비단의 양은 악주(岳州)(현 湖南성 岳陽시) 일개 지역의 생산량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최소 60% 이상은 거란과의 국제무역에서 큰 흑자를 본 송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추정된다.³²⁾ 송이 견디기 어려웠던 상황은 거란이 송의 세폐를 공식적으로 ‘납’(納) 혹은 ‘공’(貢)으로 기록함으로써 드러난 위상의 추락이었던 것이다.³³⁾ 그리하여 거란에 대해 열등한 현실을 부정하고자 한 송 조정은 더욱 대하와의 관계에서는 명목적이거나 마 그 ‘우위’를 유지하는데 집착하게 되었다.

송과 대하의 전쟁은 계속되어 1042년 가을 대하의 10만 군대는 정천채(定川砦)(현 영하회족자치구 固原 서북부)를 공략하였고 이 과정에서 송은 부도 총관 갈회민(葛懷敏)을 위시한 13명의 장군과 9400여 명의 군사가 전사하는 참패를 다시 당하였다.³⁴⁾ 즉 1940년 이래 3년 동안 3차례의 대규모 전투에서 송은 모두 크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대하는 연이은 승리에 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송의 영토를 점령하고 직접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대하로서는 물자가 풍족하지 못한 변경지역의 약탈 후 본국으로 철수하는 단순한 전략만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⁵⁾ 기마병의 유리한 전략적 이점을 가졌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1040년

31) 『續資治通鑑長編』, 70.1578, 137.3276 ; Robert Hartwell, “The Imperial Treasuries : Finance and Power in Song China,” 57 ; Wong Hon-chiu, “Government Expenditures in Northern Sung China (960-1127),” 158.

32) Denis Twitchett and Klaus-Peter Tietze. “The Liao,” 110.

33) 『遼史』, 19.227, 229, 86.1323 ; 『續資治通鑑長編』, 135.3229-31, 3234-6, 137.3283-7 ; Jing-shen Tao, *Two Sons of Heaven*, 61. 근대의 한 학자는 송의 세폐를 “逆조공”(tribute in reverse)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Yang Lien-sheng,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21).

34) 『宋史』, 289.9701-2.

초 연안부 공격 이래 군대의 반을 잃고 세사와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대하와³⁶⁾ 막대한 인구와 경제력을 갖추었지만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한 송의 전쟁은 결국 소모전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결국 대하는 1043년 초 송에 타협의 의사를 보였고,³⁷⁾ 전쟁에 지친 송나라 조정 역시 1043년 봄에 보안군(保安軍)의 판관(判官) 소량좌(邵良佐)를 파견하여 대하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송은 만일 하가 신하의 예를 갖추다면 대하의 군주를 다시 책봉하고 매년 100,000필의 비단과 차 30,000근의 세사를 제공할 의향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쟁 이전과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조건이었다.³⁸⁾ 물론 대하의 군주는 이 제의에 만족하지 않고 세사의 증액, 사신의 교역권, 소금 판매권 등을 요구하면서 1043년 여름까지 타협을 거부하였고 송 조정 내부에서도 구양수(歐陽脩)와 한기(韓琦) 등은 이러한 유화책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서로 전쟁에 지쳐있는 상황이었지만 최종 타협은 그 다음 해인 1044년 5월에 외명원호가 변경의 소금 무역 등 추가 혜택을 받고 명목적으로 칭신하는 조건에 동의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전쟁은 마침내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³⁹⁾ 대하와 송의 전쟁은 외명원호가 추구하였던 새로운 관계의 수립에는 실패하였지만 당시 국제질서가 ‘조공체제’가 아닌 전쟁과 타협, 물자제공을 통한 정치·군사력의 균형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대하와 송의 타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송 조정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바로 대하와 거란사이의 갈등이었다. 10세기 말 이래 반세기 이상 거란에 ‘조공’한 대하와 ‘책봉국’ 거란의 무력 충돌은 ‘조공체제’의 틀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1044년 5월 조정에 반기를 들고 도망한 부족을 거란이 대하의 영토 안으로 추격하면서 시작된 양

35) 李震, 『中國歷代戰爭史』, 제11권, 297.

36) Ruth Dunnell, “The Hsi Hsia,” 154-214.

37) 『續資治通鑑長編』, 138.3330-3, 139.3343, 140.3358, 142.3403-5, 3408, 145.3500-1, 3507-8, 3513-15, 146.3536-7, 149.3613, 3616.

38) 『宋史』, 11.215.

39) 『續資治通鑑長編』, 149.3636-17.

국 간의 충돌은 그 해 10월 외명원호가 표를 올려 사죄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양국 사이의 갈등은 그보다 깊었고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⁴⁰⁾ 어쩌면 거란과 대하의 충돌 배경에는 송과의 관계에서 거란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한 탕구트 왕국에 대한 거란조정 의 불만이 한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송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고도 실질적 이득은 모두 거란이 차지하게 된 현실에 대한 대하의 반발도 작지 않은 요인이었을 것이다.

거란과 충돌하게 된 대하는 송과의 신속한 타협을 원하였지만 거란은 송에게 대하와 타협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⁴¹⁾ 양측의 요구에 선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송 조정은 대하로 진격할 거란군이 꽤한 소식을 접하자 바로 “서조”(誓詔)를 내려 대하의 군주를 ‘하국주’(夏國主)로 책봉하는데 이 결정은 거란과 하의 전면전을 유도하여 세력균형의 유리하게 조정하고자 하였던 송의 의도를 드러낸다. 여기서 “서조”라는 용어는 혼성적인 성격으로 서약의 “誓”가 동등한 관계를 나타낸다면 “表”와 “詔”는 위계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군주의 칭호를 ‘주’(主)라는 한 것 역시 ‘황제’(皇帝)의 칭호를 요구한 대하와 ‘왕’(王)으로만 인정한 송 사이의 타협안이었다.⁴²⁾ 서하가 칭신(稱臣)하는 조건으로 송은 다시 세사(歲賜)로 255,000의 액수, 세부적으로 비단 153,000필, 차 30,000근, 은 72,000량에 이르는 비단, 차(茶), 그리고 은의 물자 제공을 약속하였다.⁴³⁾ 양국은 또 상대방 영토로 도망한 자들을 국경을 넘어 추격할 수는 없지만 체포한 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전연의 맹약에 명시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대하와 송의 국경이 정치·군사적 경계선이었음을 재차 확인해 준다.

송과 대하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거란과 대하의 충돌 역시 양국사이의

40) 『遼史』, 19.230-31.

41) 『續資治通鑑長編』, 151.3668.

42) Michael C. Rogers,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8.

43) 黃慶雲, 「關於北宋與西夏和約中銀絹茶的數量問題」, 『中學歷史教學』, 19-20 : 『續資治通鑑長編』, 152.3705-6 : 『宋史』, 11.219

‘책봉-조공’의 관계가 결코 ‘지배-종속’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대하는 강력한 거란의 핵심병력과 전면전을 피하였고 거란군은 매년 큰 소득 없이 철수하면서 전쟁은 소강상태로 계속되었다. 거란과 대하의 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 5년 후인 1049년 7월에 거란의 흥종이 다시 친히 정벌에 나섰고 9월에 패배하지만 그 다음해 3월에는 다시 승리를 거두는 등 어느 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였다.⁴⁴⁾

거란과 대하는 서로의 영토에 관심이 없었고 또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물자를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와 거란의 갈등이 수년간 계속되었던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양측에 모두 물자를 제공하였던 송의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송이 보낸 물자는 바로 대하와 거란의 충돌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하와 거란의 소모적 전쟁이 계속될수록 송의 입지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는 곧 송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통해 물자를 제공받고자 한 북방제국의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하와 거란의 전쟁이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 자연스럽게 타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다.

11세기 중반 동아시아 정치·군사적 세력균형의 틀 안에서 발생한 대하와 송의 5년 전쟁은 기마병의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을 구사한 ‘작은’ 국가가 농경을 기반으로 한 대제국의 경제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하와의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천하의 대국을 자처하였던 송의 자존심은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송 조정은 이미 1005년 전연의 맹약 이후 손상된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천서(天書)의 조작과 태산(泰山)의 봉선(封禪)제사를 통해 정치적 정통성과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하였고,⁴⁵⁾ 전연의 맹약이 체결된 바

44) 『遼史』, 20.240-41.

45) Suzanne E. Cahill, “Taoism at the Sung Court,” 23-44 ; Jing-shen Tao, *Two Sons of Heaven : Studies in Sung-Liao Relations*, 37 ; 胡小偉, 「“天書降神” 新議-北宋与契丹的文化競争」, 44-52.

로 1005년에 시작하여 1014년에 완성된 『冊府元龜』의 외신부(外臣部)에서 송의 관료들은 중원과 ‘주변’의 관계를 시종일관 ‘기미’(羈縻)와 ‘회유’(懷柔)라는 용어로 포장한 ‘조공’ 기록들을 만들어 낸다.⁴⁶⁾ 이러한 자기 최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하와의 5년 전쟁에서 당한 패배의 기억과 세력균형의 현실은 ‘조공체제’에서의 ‘종주국’을 자칭한 송을 오랫동안 괴롭혔다.⁴⁷⁾

4. 결론

한문사료의 형식과 용어에 집착하는 조공체제 이론의 틀은 대하-거란-송 사이의 유동적이고 복잡한 세력균형을 통해 이루어진 다원적 국제관계의 현실을 왜곡한다. 1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거란, 하, 송, 고려와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일종의 ‘정치·군사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대하는 인구나 영토, 경제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웃국가 거란과 송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독자적이자 실리주의의 외교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갔다. 거란에 대한 ‘조공’으로는 변경의 안정을 얻었고 송에 대한 ‘조공’으로는 실리를 취할 수 있었다. 거란도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현실에서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작용하면서 대하와 송의 전쟁 중에는 제3자로 가장 큰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송나라 조정은 두 번이나 수도까지 깊숙이 진격하고 중원의 일부분을 정복하고 통치하며 왕조의 생존까지 위협한 거란과는 달리 대하를 단지 변경지역의 ‘작은’ 문제로 인식하려고 하였지만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현실을 피할 수 없었다.

11세기 중반 새로 즉위한 대하의 군주 외명원호는 송에게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송이 거부하면서 시작된 5년간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전쟁 이전의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대하

46) Wang Gungwu,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58.

47) Ruth Dunnell, “Tanguts and the Tangut state of Ta Hsia,” 136.

는 송이 고집한 명목적 ‘조공체제’의 형식을 수용하는 대신 변경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에 만족해야만 하였지만 대하와 송의 5년 전쟁은 거란과 송에 대한 대하의 ‘조공’이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조공체제’의 틀을 벗어나 세계체제이론과 정치·군사연계망 등 다른 이론과 시각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한국어

- 金渭顯, 2004,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景仁文化社.
안병우, 2002,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 『역사와 현실』.
안주섭, 2003, 『고려거란전쟁』, 경인문화사.
윤영인, 2005,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 『만주연구』 제3집.
윤영인, 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이익주 외
지음,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이정신, 2003,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景仁文化社.

중국어

- 『遼史』, 1974, 中華書局.
『宋史』, 1977, 中華書局.
李 燾, 1979-1993, 『續資治通鑑長編』, 中華書局.
金渭顯, 1995, 「西夏與宋契丹之關係(986-1048)」, 『명지사론』 7.
陶晉生, 1984, 『宋遼關係史研究』, 聯經出版事業公司.
史金波, 1986, 『西夏文化』, 吉林教育出版社.
姬乃軍, 1983. 4, 「宋与西夏在保安軍互市榷場位置考」, 『宁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李 震, 1968, 『中國歷代戰爭史』, 16권, 臺北: 三軍大學.
丁傳靖, 1981, 『宋人軼事彙編』, 中華書局.
朱瑞熙 等, 1988, 『遼宋西夏金社會生活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黃慶雲, 1957. 9, 「關於北宋與西夏和約中銀絹茶的數量問題」, 『中學歷史教學』, 19-20.

서구언어

- Barfield, Thomas.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Cambridge MA & Oxford, UK : Blackwell, 1989.
Cahill, Suzanne E. "Taoism at the Sung Court : The Heavenly Text Affair of 1008."
Bulletin of Sung-Yüan Studies 16 (1981) : 23-44.
Chase-Dunn, Christopher, and Thomas D. Hall. *Rise and Demise : Comparing World
Systems*. Boulder, CO : Westview Press, 1997.
Dunnell, Ruth W.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6.

- Dunnell, Ruth W. "Tanguts and the Tangut state of Ta Hsia." Ph. 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83.
- Dunnell, Ruth W. "The Hsi Hsia." In Denis Twitchett and John K. Fairbank, eds.,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vol. 6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154-214.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Friedland, Paul. "A Reconstruction of Early Tangut History." Ph.D. diss., University of Washington, 1969.
- Hartwell, Robert M. "The Imperial Treasuries : Finance and Power in Sung China," *Bulletin of Sung-Yüan Studies* 20 (1988) : 18-89.
- Lewis, Martin W. and Kären E. Wigen. *The Myth of Continents : A Critique of Metageography*.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Rogers, Michael C,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 The Case of Chin and Koryô," *Korean Studies Forum* 4 (1978) : 1-22.
- Rossabi, Morris, ed., *China Among Equals : The Middle Kingdom &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UC Press, 1983.
- Smith, Paul J. *Taxing Heaven's Storehouse : Horses, Bureaucrats, and the Destruction of the Sichuan Tea Industry, 1074-1224*.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Standen, Naomi.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In Daniel Power and Naomi Standen (eds), *Frontiers in Question : Eurasian Borderlands, 700-1700*, 55-79. London : Macmillan, 1999.
- Tao, Jing-shen, "Yü Ching and Sung Policies toward Liao and Hsia, 1042-1044," *Journal of Asian History* 6.2 (1972) : 114-22.
- Tao, Jing-shen. *Two Sons of Heaven : Studies in Sung - Liao Relations*.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 Tietze, Klaus. "The Liao-Sung Border Conflict of 1074-1076." In Wolfgang Bauer, ed., *Studia Sino-Mongolica*, 127-151. Wiesbaden : Steiner, 1979.
- Wang Gungwu.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47-65.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Wittfogel, Karl and Feng Chia-sheng.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 (907-1125)*. Philadelphia :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49.
- Wong, Hon-chiu. "Government Expenditures in Northern Sung China (960-1127)."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75.

- Wright, David C. "The Northern Frontier." In David A. Graff and Robin Higham, editors. *A Military History of China*. Pp. 57-79. Boulder and Oxford : Westview Press, 2002.
- Yang Lien-sheng, "Historical Notes on the Chinese World Order," in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Yun, Peter I.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600-1600."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8.

■ Abstract ■

The Five-Year War(1039-44) between the Great Xia and the Song in the mid-11th century East Asian Balance of Power

Peter Yun

In the 11th East Asia, the Khitan, Tangut Xia, Song, Koryŏ, and other players formed “Political-Military Network” that maintained balance of power across the region. The State of the Great Xia skillfully played off the two larger and stronger neighbors of the Khitan and the Song. The fiercely fought 5-year war between the Xia and the Song illustrates this reality of the balance of power even as the Khitan remained neutral.

In 1038, the new Xia ruler attempted to break out of the old form of the “tribute system” in its relations with the Song. In the end, the Xia was unable to achieve the equal standing with the Song even after it had scored many victories during the five-year war. The Xia would grudgingly accept the nominally “inferior” status, but it was also well compensated for its “inferiority” with practical benefits such as the stability of the frontier regions and economic subsidy from the So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e-modern 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is not possible as long as we remain attached to the framework of the tribute system model that only focuses on form and terminologies of the Chinese records. The study of complex interplay in the multi-centered East Asian world order demands new approaches utilizing different theories and terminologies such as the “World Systems Theory” and “Political-Military Network.”

Key words : 11th century East Asia, World Systems Theory, Tribute System, Xia-Song War, Great Xia (Tangut), Khitan, Treaty of Shanyuan